

뉴스 속 **물가**, 왜 내가 느끼는 물가와 다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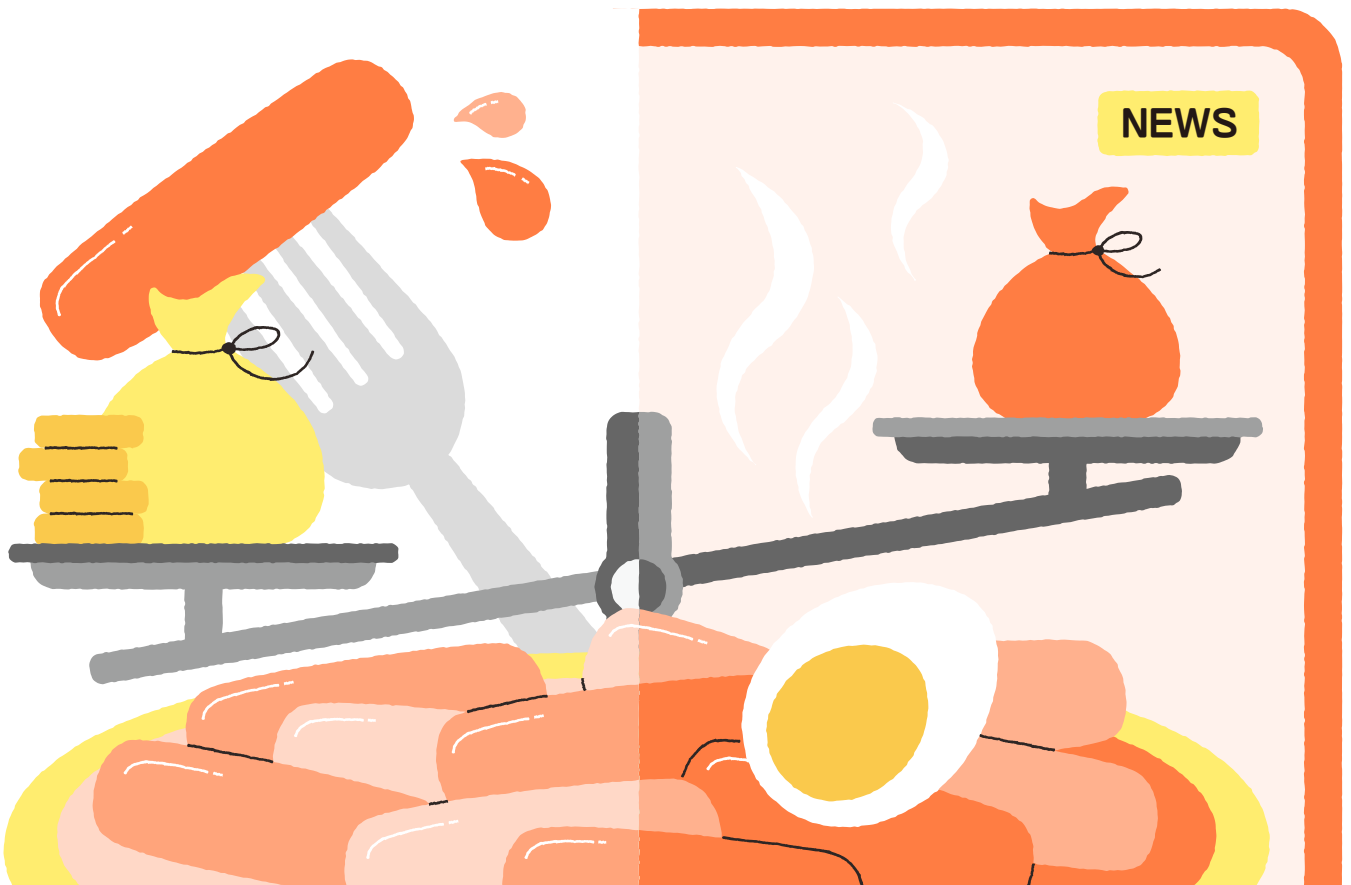
키워드

소비자물가지수

대표품목

가중치

체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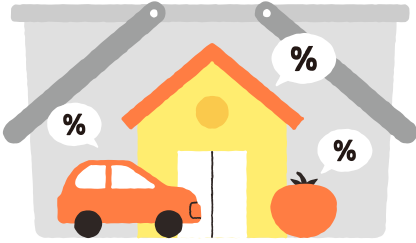
학교가 끝나고 친구와 단골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메뉴판을 보던 친구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가격이 또 올랐어? 얼마 전에도 올랐잖아!” 음료까지 시키려던 손이 슬그머니 멈춥니다. 용돈은 그대로인데 메뉴판 숫자만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물가가 지난해보다 몇 퍼센트 오르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뉴스가 뭔가를 놓친 걸까요, 아니면 내 느낌이 부풀려진 걸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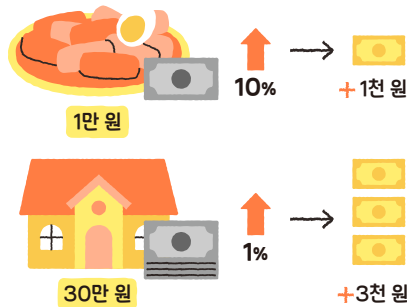
나라의 장바구니 ✨



같은 상품을 같은 양만큼 담은 장바구니를 떠올려 봅시다. 예전보다 계산할 금액이 커졌다면 장바구니 속 상품들의 가격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이하 지수)는 이런 원리로,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를 대표하도록 꾸린 '나라의 장바구니' 속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종합합니다.

나라의 장바구니에는 식료품을 비롯해 옷·교통비·학원비도 담깁니다. 모든 가격을 조사하기는 어려우므로 소비지출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비슷한 상품들의 가격 움직임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품목을 고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들 품목의 실제 거래 가격을 전국 40개 도시의 판매점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합니다.

가격 변화를 합칠 때는 품목별 지출 비중도 따집니다. 한 가구가 매달 떡볶이에 1만 원, 월세에 30만 원을 쓴다고 해 봅시다. 소비하는 양과 주거 조건이 같다면 떡볶이값이 10% 올라 더 드는 돈은 1천 원이지만, 월세는 1%만 올라도 3천 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지수는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몫이 큰 품목에 더 큰 비중을 둡니다. 이 비중이 가중치입니다.



이렇게 종합한 지수는 기준연도의 평균 가격 수준을 100으로 놓고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지수는 120.43으로, 기준연도인 2020년 평균보다 약 20% 높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년마다 다시 짜는 장바구니 ✨

가격 변화를 비교할 때는 같은 장바구니를 사용해야 하지만, 그 구성을 계속 고정해 둘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물건과 돈을 쓰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기준연도와 대표품목 등을 개편하고, 가중치는 2~3년마다 조정합니다.

2026년에는 기준연도를 2020년에서 2025년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7월에 공개된 잠정안에서는 10개 품목을 추가하고 13개를 제외해 대표품목을 458개에서 455개로 조정했습니다.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표품목을 고르는 기본 기준은 지출 규모입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이 **312원** 이상이어야 포함됩니다.

용어 정리

● 물가

여러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종합해 평균적으로 나타낸 것. 물가의 움직임을 숫자로 나타낸 것이 물가지수.

● 국가데이터처

2025년 10월 통계청이 승격하여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기관. 국가통계와 데이터를 총괄하는 곳으로 소비자물가지수를 비롯한 국가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함.

더 알아보기

⊕ 312원은 어떻게 정했을까?

대표품목의 기본 지출 기준은 전체 소비지출의 1만분의 1 이상입니다. 가계동향조사 자료에 전·월세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더하는 등 조정된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1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계산한 이번 개편안의 기준액이 312원입니다.

이는 상품 한 개의 가격이 아니라, 가구가 평균적으로 그 품목에 한 달 동안 쓰는 돈을 뜻합니다. 여기에 비슷한 상품들의 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지, 가격을 꾸준히 조사해 비교할 수 있는지도 따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마라탕·샐러드·밀키트와 클라우드 저장공간 이용료·소프트웨어 구독료 등이 추가 대상에 올랐습니다. 새로 등장하거나 지출이 늘어 대표품목이 된 것들로, 즐겨 먹는 음식과 식사를 준비하는 방식,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졌음을 보여 줍니다.

반면 USB 같은 저장장치는 지출액이 기준에 못 미쳐 제외 대상이 됐습니다. 파일을 보관하려는 필요는 같아도, 기기를 사기보다 온라인 저장공간을 빌려 쓰는 쪽으로 지출이 옮겨 간 것입니다. 지출은 계속되지만 가구가 직접 내는 돈이 줄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유치원 납입금이 목록에서 빠졌는데, 무상 지원 확대로 가구당 지출이 줄어 제외되었습니다. 블랙박스·도시락은 지속적이고 동일하게 가격조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 분류 방식도 바뀔다

지수는 품목들을 식료품, 교통, 교육처럼 돈을 쓰는 목적에 따라 열두 개의 칸으로 나눕니다. 이번 개편에서는 유엔의 국제 분류와 이를 바탕으로 한 한국 분류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2006년 도입한 지출목적별 분류 체계를 처음으로 바꿉니다.

예를 들어 '통신'은 '정보통신'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락 및 문화'에 있던 컴퓨터·태블릿PC와 TV 등을 포함합니다. 분류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면 다른 나라와 물가 변화를 비교하기도 수월해집니다.

하나의 지수, 서로 다른 생활 ✦

이렇게 장바구니를 새로 짜면 달라진 소비생활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뉴스 속 공식물가와 내가 느끼는 체감물가는 다른 걸까요?



첫째, 담은 물건의 종류가 다릅니다. 나라의 장바구니에는 우리나라 가구가 사는 상품과 서비스가 폭넓게 담기지만, 한 가구가 실제로 사는 것은 그중 일부입니다. 자동차가 없는 가구는 휘발유를 사지 않고, TV나 냉장고처럼 몇 년에 한 번 사는 물건은 올해 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산 떡볶이값이 크게 올라도, 값이 덜 오르거나 내린 품목이 함께 담긴 전체 지수는 덜 오를 수 있습니다.

둘째, 같은 물건을 담아도 그 금액의 비중이 다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지수는 전체 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몫에 따라 가중치를 둡니다. 하지만 같은 용돈을 받아도 간식에 많이 쓰는 학생과 교통비에 많이 쓰는 학생은 간식값이 올랐을 때 받는 영향이 다릅니다. 가구도 교육비가 큰 가구, 의료비를 많이 쓰는 가구처럼 지출 구성이 제각각이어서,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정한 가중치는 개별 가구와 꼭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셋째, 체감물가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자주 사는 물건 값이 오르면 살 때마다 부담을 느끼지만, 1년에 한두번 사는 물건의 가격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내린 가격보다 오른 가격을 더 잘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수는 같은 물건을 같은 양만큼 산다고 보고, 오르거나 내린 가격의 변화만 비교합니다.⊕



물가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는 방법, 보조지표 ✦

이처럼 지수는 수백 개 품목의 가격 변화를 하나로 합친 숫자라서, 그 안에서 어떤 품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는 보여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국가데이터처는 조사 품목 가운데 목적에 맞는 품목만 골라 따로 계산한 보조지표도 함께 발표합니다. 전체 지수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수를 나눠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돕는 지표입니다.



생활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는 자주 사거나 지출 비중이 커서 가격 변화를 쉽게 느끼는 144개 품목만 모아 계산합니다. 매일 먹는 식료품이나 교통비처럼 일상에서 자주 마주하는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선식품지수

신선식품지수는 생선·해산물, 채소, 과일처럼 날씨와 계절에 따라 값이 크게 오르내리는 55개 품목만 모아 계산합니다. 태풍이나 폭염 뒤에 채소값이 얼마나 올랐는지처럼, 장바구니 부담을 크게 흔드는 신선식품의 가격 흐름을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원물가지수

근원물가지수는 반대로 값이 크게 출렁이는 품목을 빼고 계산합니다. 곡물을 제외한 농산물과 석유류를 빼는 방식과,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는 방식이 있습니다. 날씨나 국제 유가처럼 잠깐의 사정으로 크게 변하는 가격을 건어 내면, 물가가 전반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더 차분하게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물가와 내 물가, 함께 읽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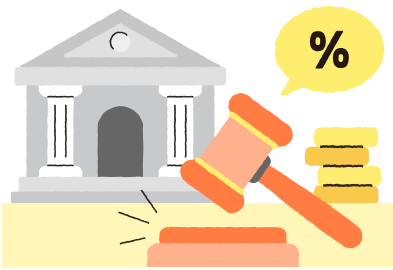
가구마다 장바구니가 다른 만큼, 하나의 지수가 모든 사람의 체감물가와 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라 전체의 물가 변화를 살피고 이에 맞춰 정책을 마련하거나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수가 필요합니다.

더 알아보기

⊕ 추가 지출과 물가 상승의 착각

가계는 생활수준의 향상, 가족 구성원 증가 등으로 소비지출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물가 상승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녀 수 증가 또는 자녀 성장에 따른 식비, 의류비 등 생활비 증가를 물가가 오른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목표로 정해 두고, 소비자물가의 움직임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살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국민연금도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연금 수령액을 조정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줄어드는 만큼, 연금의 실질적인 가치를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뉴스 속 물가는 전체 가구의 장바구니로 쟀 나라의 물가이고, 분식집에서 느낀 물가는 내 장바구니로 쟀 내 물가입니다. 담긴 품목도, 품목마다 쓰는 돈의 비중도, 가격을 느끼는 방식도 다르니 두 숫자가 다른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물가 뉴스를 볼 때는 숫자 하나만 보지 말고, 그 숫자가 언제와 비교한 것인지, 어떤 품목이 많이 올랐는지를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품목들을 내가 자주 사는 것들과 견주어 보세요. 그 노력이 뉴스 속 물가와 내가 느끼는 물가가 왜 다른지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제읽기**

생각 넓히기

- 1 내 용돈 지출로 물가지수를 만든다면 어떤 품목을 담고, 어디에 가장 큰 비중치를 두게 될까요? 국가통계포털의 **나의 물가 체험하기**를 참고해 보세요.
- 2 마라탕값이 크게 오르면, 소비자물가지수와 내가 느끼는 물가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 3 5년 뒤 다음 개편에서 나라의 장바구니에 새로 담기거나 빠질 품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전세은 KDI 연구원 | sej@kdi.re.kr

참고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보도자료, 2026.7.7.
국가데이터처, 「2026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 2026.10.2.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 누리집(mods.go.kr/cpi)(자료 열람일: 2026.9.27).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자료 열람일: 2026.9.27).
지표누리, 「소비자물가지수」 지표 설명(자료 열람일: 2026.9.27).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도자료, 2026.6.18.

〈경제로 세상 읽기〉는 기본 경제 개념을 토대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경제 현상 또는 경제 흐름을 알아보는 콘텐츠입니다. 재정경제부 경제교육플랫폼 경제배움e+(www.econedu.go.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 시리즈 모아보기

더 알아보기

나의 물가 체험하기

국가통계포털의 '나의 물가 체험하기'에서 내가 소비하는 품목을 선택하여 '나의 물가'를 '공식 물가'와 비교해 보세요.

<https://kosis.kr/myPrice>

